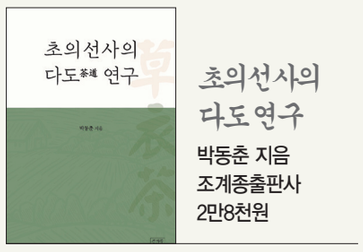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3~5/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오늘담마빠다한구절(법구경과함께하는365일마음일력)	일아/김경연	불광출판사	6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2	가시를거두세요:소나무스님의숭늉처럼속편한이야기	광우	쌤앤파커스	7	만화로보는불교명상길라잡이(대원불교문화총서2)	방경일 글,정기영 그림	운주사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대방광불화엄경강설49(36,보현행품)	여천 무비	담앤북스
4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	김원수 지음	청우당	9	숫타니파타(빠알리대장경/쿳다까니까야)양장본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5	샐러드가필요한모든순간나만의드레싱이빛나는순간(개정판)	지은경 지음	레시피팩토리	10	반야심경무슨말을하고있나:산스크리트어본과8종의한역본	관정	알아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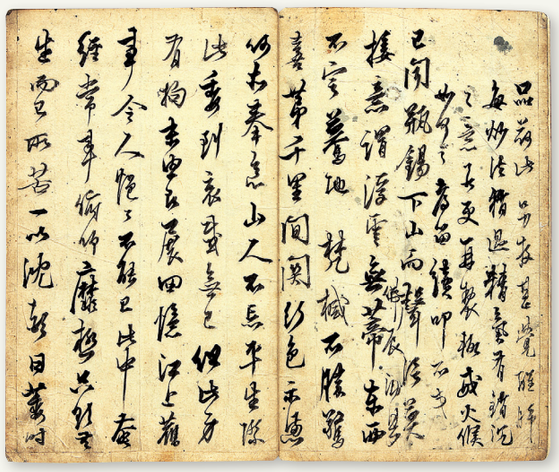
책세상

茶 통해 선·교 융합 선사상 정립하다



초의선사의 다도연구
박동춘 지음
조계종출판사
2만8천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1838년 김정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초의차의 완성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다.

'초의 다도 사상' 의문 풀어낸 최신 연구 성과
〈일지암서책목록〉 통해 초의 교유 관계 조명도

조선 후기, 자칫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던 우리 차 문화를 되살린 초의선사. 하지만 초의가 되살려놓은 다법(茶法)은 조선의 국운 쇠락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이라는 국가 재난의 연속으로 크게 꽃피우지 못했다. 다행히도 그 맥은 끊기지 않고 초의의 제자들에게 전해져 실낱처럼 명맥을 유지해왔다. 근대에 이르러 초의의 다풍(茶風)은 응송 스님에게 이어졌고, 응송 스님은 1985년, 이 책의 저자인 박동춘 박사에게 〈다도전수게(茶道傳受偈)〉를 내려 초의의 다도 계승자임을 인정했다.

저자는 이 인연으로 초의 연구에 매진했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한학을 깊게 공부한 덕에 초의와 그와 교류했던 경화사족(京華士族)이 남긴 한문 문헌을 읽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초의선사의 다도 연구를 주제로 동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자타가 공인하는 초의학(草衣學)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다. 초의의 다도법 연구에 천착한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 저자는 초의와 초의차의 대한 방대한 연구 성과를 이 책에 담아 세상에 내놓았다. 기존 연구 성과는 물론 최근 발견된 초의선사의 새로운 자료를 모두 모은 이 연구서는 '초의 사상'의 의문을 풀어낸 연구 성과물이다.

우리나라에 차가 소개된 시기는 대략 6세기 말에서 7세기 무렵으로 추정한다. 특히 당(唐)을 왕래한 승려들이 적극적으로 차를 유입했다. 10세기 말 경에 이르면 외래문화인 차 문화가 고려인의 기호와 풍토를 함의한 우리 차 문화로 발전하였다.

고려 시대는 우리 역사에서 차 문화가 가장 융성했던 시기인데, 왕실 귀족과 승려들이 차를 향유하며 다사(茶事)를 주도하였다. 문예적 안목이 높았던 고려의 음다층은 세련되고 예술적인 고려만의 차 문화를 완성했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 이르러 차 문화는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 불교를 배척했던 조선의 지배층은 차가 불교문화를 상징한다는 인식으로 멀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차는 극소수의 수행승들 사이에서나 그 명맥을 잇게 되었다.

이것이 조선 후기 초의선사의 등장으로 일변하기 시작했다. 초의는 차의 이론을 정립하고 선대의 제다법을 복원하여 초의차를 완성하였다. 당시 중국차만을 알고 있던 지식인들에게 우리 차의 우수성을 인식시켰다. 초의는 자신이 만든 초의차를 통해 조선 후기 유학자들과 교유하며 차에 대한 관심과 애호를 끌어내어 조선 후기 차 문화 중흥을 도모했다.

이 책은 이러한 초의의 생애, 수행, 저술을 심도 깊이 연구하고, 조선 후기 차 문화를 중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상세히 파헤쳤다. 또한 초의가 정립한 제다법, 탕법, 장다법을 통해 그만의 다도 사상을 살폈다.

초의가 당시 한양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경화사족(京華士族)들과 교유하며 음다 기층을 확보해 간 과정을 보여주고, 끽다거(喫茶去)의 선다전통을 이은 초의차가 누구에게로 계승되었는지 규명하여 초의차 계보를 알게 한다.

〈동다송〉, 〈다신전〉, 〈일지암시고〉 등과 초의에게 보낸 유학자들의 간찰, 초의와 교유했던 인사들의 문집을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저자가 발굴해낸 초의선사의 유품 목록인 〈일지암서책목록〉을 통해, 초의의 구체적인 다도 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근래에 발견한 초의와 추사 김정희의 새로운 자료를 비롯하여, 초의와 교유했던 경화사족의 새로운 자료도 이 책에 담았다. 초의 관련 최신 연구 자료를 담아 집대성한 최초의 연구서이다.

초의는 조선 후기 사라질 위기에 있던 사원차를 복원하여 초의차를 완성하였다. 또한 실학에 눈뜬 경화사족들의 차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애호층을 확산했다. 초의와 경화사족의 교류는 초의가 차 문화를 중흥할 수 있었던 동력이었다. 당시 초의와 교유했던 경화사족들은 그를 전다박사(煎茶博士)라 칭하였는데, 이는 초의를 차 전문가라고 인정한 것이다.

초의는 선·교 융합의 수행체계를 토대로 그의 선사상을 정립하였다. 이는 휴정 이후 대둔사에 전해진 수행 체계를 계승한 연담, 완호 등에게 영향받은 것이다. 아울러 그의 사상에 스며든 유학사상은 정약용, 김정희 등 성리학에 밝았던 인물과의 교유를 통해 영향을 받았다.

특히 초의는 정약용에게 시학과 학문 방법, 유가 사상 및 역사관 등 많은 영향을 받았다. 수행승이었던 초의가 유학, 시학, 문예 예술에 깊이 천착했다는 점은 그의 장서 목록인 〈일지암서책목록〉에 상당량의 유가서(儒家書), 당송 대의 시문 등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초의 다도는 대둔사 다풍으로 정착되어, 그의 제자들에게 이어졌다. 범해는 초의 다도를 이은 다승(茶僧)으로 여러 편의 다시를 남겼고, 이어 송광사에서 수행했던 그의 제자 금명에게 이어졌다. 그러나 금명의 뒤를 이은 제자는 근현대 불교계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제대로 맥을 이어가지 못했다. 반면에 범해의 제자인 대둔사 원응으로 이어진 초의 다풍은 응송으로 이어져 박동춘에게 전승되었다.

▲박동춘 작가는?

초의선사의 다맥(茶脈)을 이은 응송 박영희 스님에게 〈다도전게(茶道傳偈)〉를 받은 유일한 인물이다. 이는 저자가 조선 후기 초의선사에 의해 정립된 '초의차'의 이론과 제다법을 이어받았다는 증거이다. 응송 박영희 스님으로부터 무공(無空)이라는 법호를 받았으며, 전 성균관대 겸임교수를 지냈고, 현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겸임교수이자 사단법인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이사장 겸 소장을 맡고 있다. 또한 '초의차'를 계승하는 '동춘차'를 만들어 한국 다도의 맥을 보존·전수하고 있다.

불교명상을 쉽고 재미있게!

만화로 이해하는 불교명상 입문서



만화로 보는 불교명상 길라잡이
글 방경일, 그림 정기영
운주사 / 2만 원

명상은 이제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르침 내지 실천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즉, 종교적 실천을 넘어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안정과 치유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만화로 보는 불교명상 길라잡이〉는 불교명상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일종의 불교명상 입문서다. 불교명상의 역사와 개념, 종류와 원리, 명상 수행법과 구체적 실천방법, 그리고 그 효과까지 폭넓게 수록하고 있어서 입문서 겸 실천가이드북이라 할 수 있다.

만화와 글을 적절하게 배치해 쉽고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핵심 내용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다. 만화 부분은 만화로서의 특색을 살려 재미있게 각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되 더 깊은 내용으로 이끄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글 부분은 각 주제에 대한 세밀한 설명을 담아내고 실천으로 이끌어준다. 따라서 이 두 부분을 읽음으로써 독자들은 불교명상에 대한 이해는 물론 혼자서 직접 실천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다.

명상은 이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격해 현대에도 유효하다니 그 지혜가 놀라울 뿐이다. 명상은 현대인들이 겪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유효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치료에도, 집중력 향상에도, 마음의 안정에도, 건강증진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만화로 보는 불교명상 길라잡이〉는 불교명상의 대표적 분야인 위빠사나 명상과 참선 명상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불교명상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불교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것이다. 임은호 기자

▲방경일 작가는?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후 불교 관련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중이다. 유튜브 채널 〈해오름〉 〈단경〉 〈도론도담〉의 '차 한잔의 도론도담'에 출연하고 있다. 펴낸 책으로 '초기불교 vs 선불교' '33관세음보살 이야기' '우리가 모르고 쓰는 생활 속 불교용어' '만화로 보는 법화경과 새로운 해설'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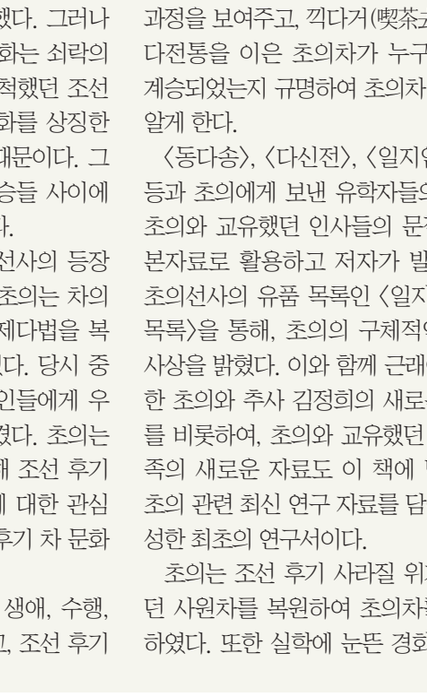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질 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들

"저자에게 단 한 문장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을 써 줘서 고마워요." (프랑스 아마존 독자평)

마음챙김 심리 치료의 선구자

출간 즉시 프랑스 아마존 1위



내가 여기 있어요
크리스토프 앙드레 지음 · 안혜린 옮김 | 272쪽 | 19,000원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대할 때 위로는 결코
고통을 말끔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견딜 만하게 해주어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지 않게끔 한다.
슬퍼하는 이에게 "울지 마"가 아니라
"울어, 눈물을 다 쏟아내, 내가 여기 네 곁에 있을게"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책 속에서)

프랑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정신의학자이자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추앙받는,
크리스토프 앙드레가 선사하는
기적 같은 위로의 힘!

더이상 기댈 곳도 버틸 힘도 없는
나와 당신을 위한 실질적인 구원의 메시지!

그 위로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다른 이를 향해 따뜻한 손을 내밀며 말할 수 있다.

"내가 여기 있어요"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홈페이지 www.bulkwang.co.kr